

‘이례적 늦더위’...올해 지역 온열질환자 ‘최다’

5월20일-9월21일 광주·전남 폭염일수 33일·열대야 37일 9월에만 각각 8일 이상...열경련 등 470여명·사망자도 6명

올해 여름철 폭염이 이례적으로 9월 중순까지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온열질환자가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응급 감시체계를 가동한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광주·전남 온열질환자(열경련·열탈진 등) 수는 각각 70명, 401명 등 총 47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6명(광주 1명·전남 5명)이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수치다.

올해 전에는 광주 118명(사망 2명), 전남 322명(사망 4명) 등 총 44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2018년이 최다였다. 그 뒤는 2023년 286명(광주 64명·전남 222명), 2016년 278명(광주 91명·전남 187명), 2017년 267명(광주 72명·전남 195명), 2019년 241명(광주 43명·전남 198명), 2015년 175명(광주 55명·전남 120명), 2020년 156명(광주 39명·전남 117명), 2022년 144명(광주 20명·전남 124명), 2021년 142명(광주 32명·전남 110

명) 순이다. 사망자가 많았던 연도는 2023년(전남 3명)·2019년(전남 3명)·2016년(광주 1명·전남 2명), 2015년(광주 1명·전남 1명), 2021년(광주 1명)·2017년(전남 1명) 순이다. 2022년과 2020년에는 지역에서 사망자가 없었다. 올해 온열질환자가 많았던 것은 여느 해보다 9월에 폭염과 열대야가 많이 나타났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20일부터 9월21일까지 광주·

전남 평균 폭염·열대야일수는 각각 33.1일, 37.9일이다. 9월1-21일로만 한정하면 8.9일, 8.6일인데, 이 기간 온열질환자는 광주 8명, 전남 37명(사망 2명) 등 총 45명 발생했다. 온열질환자가 두 번째로 많았던 2018년의 평균 폭염·열대야일수는 각각 26일, 25.7일인데 9월에는 모두 0일이었고 온열질환자는 광주에서 1명 발생했다. 이 밖의 해에도 9월 온열질환자는 구

준히 있었다. 0명을 기록한 2017년을 제외하고 지난 2015-2021년에는 각각 1-6명이 발생했으나 2022년 12명, 2023년 16명 등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내린 비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당분간 광주·전남 최고기온은 평년(25-27도)보다 최대 4도 가량 높겠다”며 “일교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야외 활동에 주의하는 등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재영 기자



폭우 피해 복구작업 23일 오전 해남군 문내면 학동마을에서 해남소방서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지난 주말 극한 호우로 침수된 외국인로자숙소 등 농가 피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독자제공>

광주 도심 118곳서 ‘필로폰 6천200회 투약분’ 회수

전남경찰, 유통책 1명 구속·매수자 6명 수사

비대면 거래로 필로폰을 사고판 마약수배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3일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매수자에게 은닉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올해 3-4월 필로폰 83.35g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광주 서구와 북구 도심 118개 장소에서 A씨가 숨겨둔 필로폰을 회

수했고, 그가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받은 103.4g을 경기지역 한 아산의 땅속에서 추가로 발견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총 186.75g으로, 6천200회 동시 투약분이다. 거래액 규모는 6억2천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마약 유통에 관여한 총책,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구매자를 추적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재영 기자

광주·전남 검경, ‘딥페이크 성범죄’ 공동대응...수사실무협의회 개최

광주지검은 23일 광주·전남경찰청과 함께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검·경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수사실무협의회는 최근 급증한 딥페이크 악용 불법 영상물 범죄에 신속·효과

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검·경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단계부터 정보와 수사 상황을 공유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조직적 범행, 아동·청소년을 대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

포 범행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찾김에...’ 사람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들 검거

북부·광산경찰, 각각 폭행치사 20대·상해치사 30대 입건

광주에서 앙심을 품은 지인을 찾김에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A(20대)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7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지인 B(20대)씨를 수십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온 A씨는 범행 당일에도 B씨와 각기 다른 장소에서 게임을 했다. 함께 게임을 하던 중 B씨가 A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반복하자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지인 등을 대동하고 B씨의 집에 찾아가 주먹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렸다. 그로부터 몇시간 뒤 A씨는 사과하기 위해 다시 B씨의 집을 찾았는데, 그 사이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C(30대)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C씨는 지난 20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거리에서 D(40대)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며 바다에 머리를 부딪친 D씨는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의해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도주한 C씨는 범행 당일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음주 상태로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일로부터 약 3주 전 자신의 아내를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온라인 게임을 종종 함께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A씨는 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키워왔다. 지난 19일 울산에서 아내와 함께 광

A씨의 아내로부터 신고를 받고 B씨가 이송된 병원으로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 광산경찰서도 상해치사 혐의로

과거 자신과 같은 주점에서 근무했던 D씨를 사건 당시 우연히 마주친 C씨는 예전부터 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안재영·이옥근 기자

광주·전남 주택 화재로 4명 사상

동구 윤림동 아파트 주민 3명 중경상...무안선 60대녀 숨져

광주·전남에서 주택 화재로 4명이 다쳐가나 숨졌다. 23일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6분께 동구 윤림동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다른 세대 입주민으로부터 접수됐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오전 10시52분께 완진됐다. 불이 난 세대의 안방에선 의식을 잃

고 쓰러진 거주자 A(60대)씨가 발견됐다. A씨 외에도 아파트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화재로 1명이 중상을, 2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의 경우 현재 호흡은 하고 있으나 의식은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량의 연기가 나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

도 빚어졌다. 앞서 이날 오전 4시46분께 무안군 일로읍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주택 현관에서 심정지 상태의 B(69·여)씨를 발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B씨가 집에서 나오던 중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두 화재의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안재영 기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